

광주 조폭 두목 낀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서부경찰, 필로폰 판매책·상습투약자 등 10명 검거 총책 검거 총력 속 지역 폭력조직원 개입 여부 조사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연루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붙잡은 판매책들을 상대로 부산지역에 거점을 두고 전국에 마약을 유통하는 공급책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추적하는 한편 지역 폭력조직원들이 마약 투약과 유통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광주서부경찰은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경기·충청지역 마약 판매책 박모(46)씨 등 3명과 이들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오모(5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광주 지역 폭력조직 수기동과 두목 A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북구 C모텔에서 충청지역 판매책 박씨로부터 필로폰 5g(시가 300만원)을 건네받아 광주, 경기 용인, 충남 아산 등지로 흩어져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차례 매입한 필로폰 5g은 150명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구속된 오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g과 주사기 2개, 대마 4.45g도 압수했다.

경찰은 구속된 마약사범 조사 과정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수기동과 두목 A씨가 지난 15일 필로폰 거래 과정에 참여하고 지난 8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필로폰 거래가 이뤄진 모텔에 간 사실, 상습 투약 혐의 등 범행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A씨의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뒤 그를 풀어줬다.

A씨가 이끄는 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는 경찰이 관리하는 지역 8개 폭력조직

(범죄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89년 11월에 결성돼 조직원이 한 때 수백명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0여명 수준으로 조직의 위세가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필로폰, 대마초 등을 유통하는 마약사범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인물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최근 수사에 나서 필로폰 투약 사범, 판매책을 일시에 검거한 데 이어 이들에게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국의 마약상에 고정적으로 물건을 대는 총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예비대학생들은 즐거워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2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예비학교인 ‘동신 문화강국’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안내하고 선후배간 교분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학금 부당수령·행사기금 횡령...대학 학생회 ‘시끌’

전남대·조선대 잇단 잡음

조선대학교 학생회 간부가 공로장학금을 부당 수령하고, 학생들로부터 받은 행사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전남대에서는 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광주지역 대학 학생회가 잇단 잡음을 내고 있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공로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모 단과대학 전 회장 조모(24)씨에게 유기정화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4월 대리 학생을 내세워 학교 측이 학생회 간부에게 주는 장학금 280여만원을 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장학금을 대리 수령해 전달한 학생이 학내 대자보를 통해 양심고백을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씨는 “장학금 대상인 학생회 간부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로장학금을 못 타게 돼 부탁을 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부당 수령한 장학금 280여만원을 학교 측에 반납했다.

앞서 조선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연합회 관계자인 민모(25)씨와 윤모(25)씨 제3자를 내세워 1학기 공로장학금 수백만 원을

대리 수령했다. 민씨는 2학기에도 공로장학금을 대리 수령했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간부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씨는 동아리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받은 170여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동아리 축제 수익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씨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련된 학생들에게 경위서를 받는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대에서는 지난 23일 학생회 간

부들의 횡령 사건을 보도한 조대신문 수천부가 배포와 함께 사라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 측은 교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횡령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전남대 여수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총학생회 학생회비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9월에는 전남대 총동아리연합회의 간부활동비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공로장학금이 이번 사건과 같은 형태로 오랫동안 지급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된 이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주운전 0.05% 적발...법원서 반전

“측정 지연으로 알콜농도 상승 가능성...처벌 위협”

측정 지연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가 나와 처벌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30분께 택배기사 A씨는 5년 만에 만난 고향 후배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3병을 나눠 마셨다. 8시40분께 식당에서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8시50분에서 8시55분 사이에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 순서를 기다리다가 9시4분께 호흡측정,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나왔다.

0.05%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A씨가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뒤 10여분 지나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됐다”며 “실제 운전 때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병집)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남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무렵에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0.008%에서 0.03%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종음주시점이 오후 8시40분, 음주운전시점은 8시50분에서 8시55분, 호흡측정시점은 9시 04분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어 음주운전시점에는 측정값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A씨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는 전제에서 내린 처분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텔 화재 피해 막은 순찰 경찰...투숙객 신속 대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모텔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투숙객들을 대피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았다.

25일 오전 순찰차로 광주시 서구 삼촌동 일대를 순찰하던 광주서부경찰 상무지구대 김신웅 경위(46)와 최유성(41) 경사는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주위를 살폈다. 인근 모텔 건물 옥상에서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김 경위 등은 인근 상점 직원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불이 난 모텔로 뛰어들었다.

모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탄 냄새가 난지던 근무하던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은 이를 전혀 모르는 듯 조용했다. 이들 경찰관은 직원에게 옥상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려며 가장 먼저 전기를 차단한 뒤 객실마다 문을 두드려 30여명의 투숙객을 10여분만에 대피시켰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신고된 화재는 7층짜리 건물 옥상의 세탁실에서 발생했으며 세탁기와 전선 등을 태운 뒤 소방당국 등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마카오 도박 임차용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임차용 선수를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도박장 운영업자로부터 임차가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진

술을 확보하고 전날 오후 9시에 임씨를 불러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

임씨는 도박장에서 수천만원대의 게성라이온즈 소속 임차용 선수를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도박장 운영업자로부터 임차가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진

/연합뉴스

몰카·성매매 정보 공유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키로

○경찰이 불법 음란물과 여성에 대한 몰카,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을 폐쇄키로 해 관심.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안전행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라넷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가 있는 미

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전후로 오픈해 16년째 운영 중인 소라넷은 정상적인 경로로 접속할 수 없음에도 현재 회원 수가 100만명에 이르며, 경찰이 2004년부터 운영진 63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벗어났다.

/김형호기자 khh@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